

목장교회 나눔지

2019. 4. 26.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10분)

· 당신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 장마비와 같은 찬양과 경배(5분)

찬
송
가
1
6
5
장

1.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 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2.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3.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 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후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
송
가
1
6
5
장

1.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2.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3.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 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후렴]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0분)

요한복음 20장 1-18절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A.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 또 머리를 싹뚫은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싹뚫은 대로 놓여 있더라 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설
교
내
용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 라는 말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B. 말씀요약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간다” B는 Birth태어남이고, D는 Death죽음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예외인 인생은 없다. 다 죽음으로 가는 삶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멈추면 허무해진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간이 있다. 바로 C이다. C는 바로 Christ 예수님이다. C로 갈 때 위로와 소망, 평안이 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가 풍성한 은혜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예수 아버지께 오다』를 쓴 하비 콕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심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의 부활이 시신을 감춰다가 헛소문을 낸 것이라 가정해보자. 눈 앞에 있는, 이제는 죽어 아무 영향력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제자들과 무리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일생을 드렸을 것이다. 그 시체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 거짓을 증명하는 데 드렸겠느냐?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렇게 붙들고 나아갔는가? 냄새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위해 미래를 드리고, 인생을 드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을 목도하는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에게 소식을 전했던 마리아가 있었다. 이 세 사람을 본문은 조망하고 있다. 세 사람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첫 번째로 마리아를 살펴보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다. 때는 주일 새벽, 이른 아침이다. 그는 끊임없는 상심을 가졌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다. 장례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싶었다. 시체뿐인 예수라 할지라도, 그분이 자기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무엇인가 하고 싶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그녀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주셨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비로소 해방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감사한 삶을 살던 이였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죽음일 때에 무덤 돌문이 가로막고있어서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달려가보니 무덤 문은 없고, 시체는 없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소식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요한을 바라보자.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어) 무덤으로 달려왔다. 요한이 먼저 당도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던 것을 보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사도 요한은 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주저했을까?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볼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확인했던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는 용감하게 무덤 안에 들어가 확인하기보다는 들여다보는 데 급급했다. 용기가 없었다.

나눔 제 1부	나눔 1	세 번째로 혈레벌떡 뛰어 들어온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세마포, 얼굴을 씻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시신을 가져갔다면 굳이 예수님의 겹을 감쌌던 것을 벗기고 가져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시신이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 밖에 없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왜일까? 베드로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랬던 그가 하룻밤 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마침가지로 우리 죄가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 죄책감. 그 무거운 죄책이 부활의 주님, 기쁨의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경우를 보게 된다. 어떤 이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부활의 기쁨에 싸여 있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부활의 기쁨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다시 첫 번째 인물인 마리아로 시선을 향해보자. 그녀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없고, 다른 이들과 교제를 할 수 없었던 과거가 많은 여인이었다. 누구도 그를 제대로 된 관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삶이 변화되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죄 사함의 은혜인 것이다. 정결케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바로 서게 될 수 있었다. 쓸모 없는 인생을 죄사하시고, 온전케 하셨다.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울었다. 그녀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울었다. 그녀는 진정 예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아와 울도록 하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 울고 있을 때 천사인 줄 알았던 주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된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 지어다. 피스 위드 유 Peace with you.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이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염려를 해결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염려를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결책은 우리에게 전혀 없다. 더 큰 염려가 우리를 움킬 것이다. 이 아침에 염려를 떨칠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 부활의 예수님은 죄에 빠져, 깊은 교제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상심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죄사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보내신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것임을 말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모든 염려, 죄책, 자격은 필요없다. 그저 우리 주님을 보고 울도록 하자. 우리의 모든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 분께서 주시는 평안함에 깊이 잠기도록 하자. 그 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눔 2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제자였다. 그는 무엇에 사로잡힌 자였는가?

나눔 3	마리아는 ‘상한 심령’으로 무덤에 머물러 있었으며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	
- 담임목사님의 영육의 회복과 재충전, 새 비전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도록. - 봄맞이 대심방을 위하여 - 육신과 영적 연합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 김낙기안수집사 : 평안과 영육의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 주시도록. - 박태식집사 : 콩팥과 허리의 치유와 고통의 회복을 주시도록. - 정기현권사 : 항암치료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	
[교회 광고]	
① 큐티 동역자 100명 세우기 II 올 한 해 100명의 큐티동역자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모든 목장에서는 큐티를 구입하여 나누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목원들을 가입하도록 안내해주시고, 매일 새벽 묵상시 1-2줄 답글을 달아 서로 독려하는 일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봄맞이대심방 II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 - 주기도문	
[목장별 사역메모]	